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美정부, 수퍼301조 부활지지

미 정부는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수퍼 301조 부활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캔터 대표는 만약 수퍼 301조 부활법안이 패스트트랙 연장법안에 포함시키게 될 경우 오는 7월 G-7 회담에서의 관심이 UR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시장접근협정보다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집중시켜 UR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캔터 대표는 수퍼 301조 부활과 함께 행정부 직권에 의한 301조 조사개시도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USTR 위원들에게 행정부 직권에 의한 301조 조사개시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고 이 검토가 끝나면 이를 의회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캔터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과 관련, 늦어도 오는 7월초까지는 무조건적인 패스트 트랙 적용기간 연장승인을 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캔터 대표는 상원 국제무역 소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요청하고 만약 미의회가 무조건적인 패스트 트랙 적용기간 연장승인을 거부할 경우 각종 수정안의 쇄도로 행정부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 노력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오는 7월초 동경에서 개최될 G-7(서방선진7개국) 회담을 앞두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패스트 트랙의 적용

기간을 금년 12월 15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해 왔었다.

무엇보다도 미 행정부는 G-7 회담 전까지 자국 의회가 패스트 트랙의 적용기간을 연장해줄 경우 다른 국가들을 고무시켜 연말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타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 무역 소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민주당 의원이 이의 전제조건으로 수퍼 301조의 부활을 주장하고 나오므로써 원만한 패스트 트랙 적용기간의 연장에 차질을 빚어 오고 있다.

2. 美國,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 확대

올들어 미국산 반도체 수요가 급증, 美 반도체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크게 확대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미국의 데이터퀘스트사는 미국내 컴퓨터 매출호조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신장되면서 올해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미국산의 점유율이 3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높은 34%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해 51억달러에 달했던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29.7%의 점유율을 나타내 91년보다 거의 5% 포인트가 확대되었다.

美 데이터퀘스트사의 이같은 전망은 올들어 미국산 반도체의 매월 신규오더가 매출실적을 20%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배경에 근거를 둔 것이다.

美반도체산업협회가 집계한 지난 3월 중 미

국산 반도체 신규오더는 21억9천만 달러에 달해 전월대비 5.4%가 증가했으며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무려 46%가 증가했다. 또 5월중에는 반도체 신규오더가 2억17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37.4%가 늘어 반도체 수요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국산 반도체 수요가 이처럼 급신장되고 있는 것은 미국내 컴퓨터 기기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美전자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1·4분기중 미국시장의 컴퓨터 기기 매출이 148억5천만달러에 달해 전년동기비 17%나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퀘스트사의 한 시장분석가는 이러한 미국산 반도체 매출호조는 일본기업들에게 대부분의 시장을 내주었다가 다시 시장탈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 설비 메이커들에게도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3. 北美 FTA 부수협정타결 임박

멕시코의 헤르미니오 블랑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석협상대표는 NAFTA 부수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오는 7월중순까지는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랑코 대표는 히스패닉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앞으로 수주일 이내에 협상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환경 및 노동 부수협정상의 기술적인 내용들이 협상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또 일부 협상분야에서는 북미 3국간의 정치적인 결단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랑코 대표는 또 멕시코와 캐나다는 환경 및 노동협정 위반할 경우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키자는 미국측의 제안에 대해 결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이같은 제안을 후퇴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무역제재 규정을 삽입하게 되면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4. 日반도체 産業 멀티미디어용 제품 전환

일본의 반도체산업은 지금까지의 메모리중심에서 멀티미디어용제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일본반도체업체의 장래 전망을 분석한 조사에서 지금까지의 DRAM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 통신·화상처리용반도체 등 멀티미디어기기용 제품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메모리의 고집적화로 제품의 소형화가 진전됨에 따라 성스페이스화의 메리트 상실되었으며 첨단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 기능에 차이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멀티미디어기에 필요한 DSP(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등으로 들었다.

이같은 제품분야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반도체메이커들이 지금까지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통신 및 영상미디어 등의 시장동향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기기사업과의 연계 및 타메이커와의 협력관계 등에서 판단할 경우에 가장 잠재성장력이 높은 기업으로는 NEC를 들었다.

히다치도 가격성능비가 우수한 MCU(마이크로컨트롤러)를 보유하고 있어 게임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바는 우수한 미세가공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고 메모리의 매출액비중이 큼에도 이익율이 높지 않아 현재의 상태에서는 성장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 반도체업체는 제조기술부

문에선 세계최첨단을 걷고 있으나 사업영역의 확장에선 미국에 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반도체업체들이 제조기술분야에서 일본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최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5. EC, 고품질TV 開發방식 確定

EC통신 장관들이 회동, EC의 HDTV(고화질TV) 개발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HDTV 개발방식 변경과 지원규모 축소를 둘러싼 회원국간의 오랜 논란이 끝나고 HDTV 개발에 박차를 가해질 전망이다.

이번 EC통신장관회의에서 통과된 HDTV개발안은 영국의 주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EC측이 개발해온 아날로그방식과 미국이 개발을 강화, 한발 앞서고 있는 디지털 방식을 병행해서 개발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당초 EC집행위가 제안한 개발안은 역내 산업에 8억 5천만 ECU의 개발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영국이 크게 반대, 이번 합의안에서 개발기금 규모가 2억 2800만 ECU로 줄어든 것이다.

EC측은 개발기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축돼도 프랑스 톰슨, 네덜란드 필립스 등 역내 전자업체가 美·日 라이벌들과 개발경쟁을 벌이는데 일익을 담당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톰슨 등 역내 오디오·비디오회사들도 EC차원에서 제공될 개발기금과 맞먹는 액수의 자금을 출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개발기금 축소 뿐만 아니라 개발기금의 사용처도 분명해야 된다고 주장해왔고 또 미국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EC개발방식을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6. 중국, 電子산업 外國投資유치 적극

중국이 전자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근 대형 교역그룹을 조직했다.

전자공업부의 고위관리인 왕 진첵이 이끄는 이 그룹은 전자산업분야의 해외파트너를 모색하기 위해 내달초 홍콩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그룹은 내달 5일~11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될 군사기술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한 국제 무역전시회에 최신의 과학 및 기술적 업적 300여건을 출품할 계획이며 동시에 여기에서 수입협상도 벌일 예정이다.

중국의 전자산업분야에서는 1만 7천개의 기업이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180만명에 달한다. 지난 한해동안 중국 전자산업의 총생산은 1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수출실적인 68억 7천만달러에 달해 중국 총수출규모의 8.47%를 차지했다.

수출품목에는 위성수신기, 컬러TV용 장비세트, 레이저 사진식자 장비, 가전제품 및 전자 부품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중국은 500만대의 컬러TV수상기와 1억 2천만대의 녹음기를 수출했다. 특히 중국에서 수출하는 흑백TV는 전세계의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경우는 1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전제제품 수출국으로 급부상했다.

한편 중국은 베트남과, 미얀마, 몽고에 위성수신기와 방송송신장치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7. EC 환경마크제도입 難航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럽공동체(EC)가 오는 7월부터 도입키로 한 환경

마크제가 회원국들의 의견불일치와 생산자·소비자단체의 반목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EC집행위는 지난 80년대말 환경피해가 없 는 제품생산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거세지면서 EC차원의 환경마크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최소한 5가지의 환경마크 를 도입, 7월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는 계 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안에서 회원각국이 환경마크제 시행을 관장하는 국가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했 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일부 회원국들이 조직정비 작업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프랑스, 네덜란드가 EC와는 별도의 독자 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영국도 환경 마크제를 EC차원이 아니라 각국의 사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회원국들의 공동시행을 목표로 한 집행위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회원국간의 의견불일치와 함께 각국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첨예한 이해대립 또한 환경마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가로막는 걸림 도로 작용하고 있다.

집행위는 환경마크제 도입이 소비자들의 제 품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함께 생산자들의 환경보전기술개발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 로 기대했지만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제품의 판

단기준 문제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8. 브라질, 關稅率 대폭 引下

브라질이 오는 7월 1일을 기해 관세 인하를 단행한다. 또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금지도 해 제한다.

브라질은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관세율을 현재의 평균 17.1%에서 14.2%로 낮출 방침이 다. 컴퓨터 등에 적용됐던 최고 수입관세율도 기존의 50%에서 40%로 낮아지게 된다.

품목별로는 VCR, 확성기, 전자 레인지, 완 구, 쿠키, 정제약품 등은 기존의 40%에서 30 %로,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은 40%에서 35% 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믹서, 시계, 자전거, 초콜렛 등은 35%에서 20%로, 의류, 맥주, 농업용 트랙터, 기관차, 객 차 등은 30에서 20%로 낮아지며 이 밖에 가 공육과 가공생선은 25%에서 20%로 각각 낮 아지게 된다.

그러나 육류, 생선, 해산물, 연료유 등은 기 존의 10%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가죽신 발류와 분유, 버터, 과일통조림, 야채통조림, 모터류, 기계장비 등 역시 기존의 20% 관세 율이 변경없이 적용된다.

<98page에 이어서>

1,200만개로, 이것은 세계 전체생산의 80.4%에 필적하는 것이다. 이미지·스캐너는 69만 4,000대로 세계의 64.4%를 점한다.

마더보드는 596만개(세계 셰어의 8%), 모 니타는 1,110만대(同 47%)를 생산하였다.

금년의 대만 IT산업의 경향으로서 주목을

끌고 있는 10개의 상품군은 아래와 같다.

486/64바이트 데스크톱 PC, 코큰 링 카드, TFT칼라 노트북 PC, 멀티미디어 업그레이드 키트, 팜톱 PC, 로칼 버스/486 CPU 마더보드, 15인치, 플랫트 스캐어 논 인터레스 모니터, 1200dpi 플랫트 베드 스캐너 등이다.